

뿌리·농기계 기술 고도화 지원 나선다

전북도, 올해 2단계 맞춤형 기술지원 추진... 선정된 17개 기업 기술진단·혁신역량 등 분석 지원

전북도가 주력산업의 근간이 되는 도내 뿌리·농기계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뿌리기술”은 주조나 금형, 소성 가공 등 제조업 공정기술로 생산기반의 핵심기술 중 하나다.

도는 뿌리·농기계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의 2단계(2021년~2023년), 1차년도 대상모집에 37개 기업이 신청해 서면 평가와 현장 확인을 통해 최종 17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주, 익산, 김제가 각각 4개소, 완주 3개소, 정읍 2개소가 선정된 이들 기업은 기업의 기술진단과 혁신역량 등의 분석을 지원받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부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와 손잡고 도내 뿌리·농기계 기업의 기술역량 진단 및 정밀분석 등을 지원해 왔다.

지난 3년간(2018년~2020년) 1단계 사업으로 총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내 39개 뿌리기업의 생산공정·제품성능 개선기술 및 핵심제품 기술개발 R&D 등을 지원했다.

1단계 사업에 참여한 이들 기업들은 국가 R&D 과제에 응모·선정돼 총 56억원의 연구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추진하는 2단계에는 현장의 기술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밀착형 기술개발지원을, 제품 개발을 위한 특화기술이 필요한 기업에는 핵심 전략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수요에 맞춘 기술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2단계에 선정된 도내 17개 기업 중 밀착형 기술개발지원은 15개 기업이, 전략기술 개발지원에는 2개 기업이 선정됐다.

밀착형은 과제당 5,000만원, 전략기술은 과제당 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뿌리기술이 없어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최적 제품 개발과 국가 R&D 수행 사후관리를 통해 도내 뿌리기업의 중장기 기술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뿌리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북뿌리산업 종합발전계획(2021~2023)을 수립하고, 기술혁신과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전문화된 전북 뿌리기업 육성을 목표로 도내 뿌리·농기계 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뿌리기술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요소”라며 “2단계 사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첨단융합 및 핵심뿌리기술 지원을 통해 도내 뿌리·농기계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거시기장터 농특산물 할인행사

3월 한 달간 20% 할인하는 '대한민국농협합시다' 진행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3월 한 달간 거시기장터에서 도내산 농특산물을 20% 할인하는 ‘대한민국농협합시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 거시기장터가 마켓컬리, 이마트 등과 나란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국산 농축산물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도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할인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거시기장터에서 농축산물 구입시 20%(최대 1만원) 할인을, 전북은행 카드결제 시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친환경, GAP 등 ‘전·국·시’ 국가인증 전용관과 ‘올봄

막강전’ 봄맞이 기획전을 마련해 국가가 객관적으로 인증한 전북산 농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김창열 도 농산유통과장은 “국가 지원 할인행사와 국가인증 전용관 큐레이션은 올 상반기 리브랜딩 예정인 거시기장터의 첫번째 변화”라면서 “전북 대표 농식품 온라인의 품격을 높이고,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고민하는 국민에게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oplaza.com)나, 거시기장터 고객센터(070-4176-9299)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도,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 지원 공모 선정

전북도는 3일 총사업비 18억원(국비 7억2,000만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국산밀 전용 건조·저장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산 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등 도내 밀 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도는 공모 선정으로 국내 밀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부안군 우리밀 생산단지 등에 향후 2년간 밀 건조·저장시설의 구축 및 개보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주산지에서 생산된 밀의 수집·건조·저장이 가능한 전용시설을 구축해 우리밀 거점시설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입·출고시설, 건조시설, 정선시설, 저장시설, 자동제어시설, 품질검사장비, 집진시설 지원 및 생산농가 조직화, 생산성 향상 및 운

영활성화 등을 위한 기술 지원이다.

전북도는 전국 2위 규모의 밀 생산지이며, 생산확대와 국산 밀 산업 육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국산 밀 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북은 고품질 우리밀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밀순도관리, 토양분석, 저장관리 등 농가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생산단지에서 재배된 우리밀은 정부 비축수매 대상으로 그동안 판로 문제를 겪었던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어 향후에는 생산단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은 올해 ‘전북도 밀산업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과제수행을 통해 전북 밀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삼라농정 우리밀 TF’ 논의를 통해 전북도 밀산업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조사 경과 발표

3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사례와 조사 경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노숙인시설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전북도, 5개소 종사자 68명 대상 주 1회 실시

전북도가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정기검사를 추진하는 등 감염 사각지대 해소에 공백을 권다.

도는 노숙인시설 5개소 종사자 68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코로나19 정기검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노숙인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정기검사는 요양·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방법은 시설 유형에 따라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은 직접 종사자의 검체를 채취해 보건소에 의뢰하고,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설은 종사자 전원이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는다.

특히, 노숙인시설 내 생활인은 1일 1회 이상 발열체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다른 생활인과 격리해 보호한다.

거리에서 노숙인이 발견돼 노숙인시설로 연계될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각 시·군별 실정에 맞게 별도의 격리공간에 머무르도록 조치하고 있다.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된 후 시설에 연계되므로 거리노숙인 입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은 철저히 차단되

고 있다. 이러한 철저한 관리로 지난 1월 말경 서울지역 거리노숙인에서 코로나19가 집단발생 했을 때에도 노숙인시설 종사자 및 생활인 260명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 결과 전원음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전북도는 지난 1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한파대비 도내 14개 시·군 및 노숙인시설 5개소의 협조로 거리노숙인 보호활동을 실시해 22명의 거리노숙인을 보호한 바 있다.

보호활동은 14개 시·군의 역·터미널·공원·시장 등 노숙인 주요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보호활동 중 발견된 노숙인에게에는 방한용품, 간식 및 음료, 마스크 등을 제공했다.

또한, 신원조회 후 보호자 유무에 따라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노숙인시설에 입소시키는 등의 조치를 했다.

거리노숙인 보호활동은 도내 노숙인시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14개 시·군의 협조 하에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14개 시·군별로 노숙인 발생 시 코로나19 검사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보건소와 경찰 등이 협조하는 거리노숙인 코로나19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내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주 1회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종사자를 통한 시설 내 2차감염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추진

전북도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 학생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으로 장애인 욕구에 맞는 취미여가활동, 직업탐구활동, 자립준비활동, 관립체합활동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유호상 기자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통역 자원봉사자 확보 나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는 대회 운영에 필요한 통역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인력풀 양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통역 자원봉사자는 언어소통 지원 등 700명 정도로 이번 대회 운영 중 주요 출입국 지원, 개·페막시, 종합안내소 및 경기장 등을 지원한다.

통역 자원봉사자들을 일컫는 애칭은 여러 가지다. ‘국제 행사의 꽃’, ‘국제

스포츠대회의 꽃’, ‘민간 외교사절단’, ‘히든 챔피언’ 등이 그들을 부르는 별칭들이다. 이들은 대규모 국제행사나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성패를 가르는 가능자이기도 하다. 조직위가 대회를 2년 여 앞둔 지금 통역 자원봉사자 확보를 서두르는 이유는 국제행사의 성공요건은 원활한 의사소통이다.

조직위는 우선 통역 자원봉사자 확보와 관련된 도내 유관기관인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도내 대학 등과 긴

밀한 협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각 기관별 통역 인력풀 통합 구축·관리를 통해 자원봉사 지원을 유도하고,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는 매년 자체별도 공공외교단 모집·양성한다. 또한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타 시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참여·홍보,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는 확보된 기존 가용인력을 활용 및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부안군 공고 제2021-350호

부안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부안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청회 개최
 - 가. 2025년 부안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 가. 개최 예정일시 : 2021. 3. 24(수) 14:00
 - 나. 개최 장소 : 부안군청 2층 대강당
- 관리계획 재정비(안)의 개요
 - 가. 공간적 범위 : 부안군 행정구역(493,716km)
 - 나.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 2025년
 - 다. 주요내용
 - 1) 부안군 장기발전구상
 - 2) 기존 군관리계획 정비
- 의견 제출처 : 부안군청 도시공원과 ☎ 063-580-4701, Fax 063-580-4454
- 기타
 - 가. 코로나19 관련 참석자 준수사항
 - 1)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여행 이력이 있을 경우 참석 불가.
 - 2) 참석 시 마스크 착용 필수(미착용 시 참석 불가).
 - 3) 시설·단계별 방역조치에 따른 좌석배치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100명 미만)
 - 나.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공청회 개최가 연기될 수 있음.
 - 다. 기타 공청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안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063-580-47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4일 부안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